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광주 - 동함평IC 구간 왕복 통행료 환불
우천시 9홀 이후 홀별요금정산제 실시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베이징올림픽 D-51 - 한국 톱 10 수성 위해선…

중국 텃세 피해 금 10개 확보해야

오는 8월8일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을 50여일 앞두고 한국대표팀이 세계 10위 안에 진입하기 위해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땀을 쏟고 있다. 193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올림픽에 처음 출전했던 한국은 다시 돌아온 1984년 LA올림픽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발판으로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양궁·태권도 등 강세종목 금맥 유지 기대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때까지 10위 안에 들었던 한국은 2000년 호주 시드니대회 때 공동 12위로 밀리기도 했지만 2004년 그리스 아테네 대회 때는 9위를 차지하면서 체면을 세웠다.

인접국가인 중국에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은 기후와 시차가 한국과 비슷해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에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종합 1위를 꿈꾸고 있는 중국이 한국의 전략 종목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전통의 강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쿠바에다 구 소련 국가였던 우크라이나가 아테네 올림픽 때 12위에 오르는 선전을 펼쳤다. 결코 10위 자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올림픽에는 28개 종목, 302개 세부종목이 열리며 아직 올림픽 예선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소프트볼과 여자축구, 트라이애슬론 등을 제외한 거의 전 종목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10위 안에 들기 위해서 필요한 금메달 숫자는 10개. 대한체육회는 양궁과 태권도, 유도, 레슬링, 배드민턴, 사격, 탁구, 역도, 수영 등 10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바라 보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다. 경기 당일 컨디션에 따라 메달 색깔이 바뀌는 기록 종목 뿐 아니라 상대성이 강한 격투기 종목도 변수가 있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전통의 강세 종목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양궁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 싹쓸이를 목표로 세웠다.

한국 역대 올림픽 성적

회	개최지 및 연도	금	은	동	순위(참가국 수)
11회	베를린(1936)	1*	-	1	12(49)
14	런던(1948)	-	-	2	11(59)
15	헬싱키(1952)	-	-	2	12(69)
16	멜버른(1956)	-	1	1	11(67)
18	도쿄(1964)	-	2	1	11(93)
19	멕시코시티(1968)	-	1	1	11(112)
20	뮌헨(1972)	-	1	-	12(121)
21	몬트리올(1976)	1**	1	4	11(92)
23	로스앤젤레스(1984)	6	6	7	10(140)
24	서울(1988)	12	10	11	4(159)
25	바르셀로나(1992)	12	5	12	7(169)
26	애틀랜타(1996)	7	15	5	10(197)
27	시드니(2000)	8	10	10	12(199)
28	아테네(2004)	9	12	9	9(202)

*손기정(마라톤) **양정모(레슬링)
자료/대한체육회 연합뉴스

남녀 단체전과 남녀 개인전 등 금메달 4개가 걸려 있는 양궁은 일단 탄탄한 전력을 갖춘 여자선수들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주고 남자선수들이 개인전이나 단체전에서 금메달 1개만 보태준다면 금상첨화다. 일단 양궁에서 금맥을 터뜨려 준다면 한국의 10위 레이스는 한결 쉬워지고 태권도에서 2개를 더하면 절반은 달성하는 셈인데 나머지 종목들이 만만치 않다.

탁구에서도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지만 종합 1위를 가기 위한 중국이 싹쓸이 자신하고 있어 힘겨운 승부가 예상되고 역도의 장미란도 중국의 무솽솽과 대결을 벌여야 한다. 무솽솽은 한 때 국가별 출전 제한 규정 때문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았지만 최근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세우면서 출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레슬링에서는 그레코로만형 55kg급 박은철, 60kg급 정지현, 66kg급 김민철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 체급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수영의 희망 박태환은 자유형 400m, 1500m에 도전하지만 호주의 그랜트 해켓이 버티고 있다. 또한 배드민턴도 중국의 텃세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점이 걱정거리다.

/최재호기자lion@kwangju.co.kr·연합뉴스

▼ 올림픽 메인스타디움 '궈자티위창'(國家體育場)

백지란 통신원의 지금 베이징에서

지진 폐허서 5일만에 구조된 청년 성화 봉송…올림픽 열기 달아 올라

두 번씩이나 중국을 흔든 젊은이가 있다. 중국 언론은 그 때마다 이 청년에게 홀렸다. 5억 네티즌도 흥분했다.

장위항(蔣雨航·20). 125시간, 꼬박 닷새 다섯 시간 만에 쓰촨(四川) 대지진의 폐허 더미 속에서 살아나온 인물이다. 하늘이 무너진 역경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를 13억 중국인들은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불렀다.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그가 어느 날 돌연 성화봉송 주자로 나섰다. 중국은 또 한 번 놀랐다. 미소 띤 표정으로 성화를 들고 힘차게 뛰는 그의 모습에서 중국 인민들은 끈질긴 올림픽의 생명력을 읽었다. 지진이 와도, 전쟁이 덮쳐도 꺼지지 않았던 성화를, 그 정신을, 이 청년은 온몸으로 보여줬다. 지난 13일 고향인 궤이저우(貴州)성 카이리(凱里)시에서였다.

지난달 12일 아침, 그는 철야 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그의 직업은 쓰촨 고속도로 관리인, 학생 신분으로 실습 중이었다.

한참 꿈속을 헤매던 시간, 침대가 강하게 흔들렸다. 놀란 그의 얼굴 위로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베개 아래 얼굴을 묻었다. 그 순간, 방 전체가 뒤집히고 침대가 몸을 눌렀다. 그는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실눈을 떠보니 주변은 캄캄했다. 안간힘을 써서 몸을 누르고 있던 돌덩이를 들어냈다. 그리곤 한 방에서 자고 있었던 동료 2명의 이름을 불렀고, 어딘가에서 대답이 돌아왔다. 그 때부터 이들 세 사람은 몸 상태를 물으며 서로를 의지했다.

며칠이 지났을까, 희망은 없었다. 결국 두 동료는 무너졌다. 자꾸 눈물만 흘렸다. 그런 어느 날 마침내 멀리서 "사람 있어요?"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들 셋은 온 힘을 쥐어짜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두 동료는 눈 앞까지 내려온 구원의 끈을 잡지 못했다. 한계였다. 어느 순간, 이들의 말소리가 사라졌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장 군도 머리가 천근처럼 무거워졌고, 졸음이 쏟아졌다. 힘을 다해 눈을 치켜 뜨고 손발을 움직여 졸음을 막아냈다. 귀는 소리에 집중시켰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쉬자'고 생각한 순간, "둘째야, 둘째야"하는 어머니가 목소리가 들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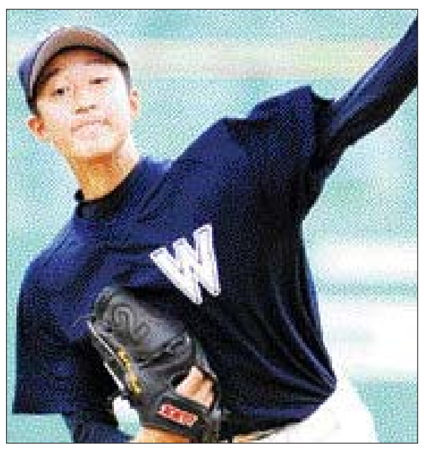
"여기 있어!" 이 말을 끝으로 그는 실신했다. 잠시 후 상하이 구조대원이 그를 끌어냈다

그의 생환 장면은 중앙방송(CCTV)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됐다. 어둔 절망 속에서 보여준 그의 용기와 투쟁은 전 인민을 울렸다.

생환 한 달. 그의 몸은 점차 회복됐다. 그리고 지진이 찢어놓은 쓰촨성 내 성황 봉송도 재개됐다. 예정보다 한 달 가량 늦춰진 시점이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장 군에게 성화 봉송을 제의했다. 그를 통해 지진으로 꺼져가던 올림픽 성화를 다시 한번 피워 올리기 위해서였다.

이 생각은 적중했다. 13억 인민이 그가 치켜 올린 성화에 환호했다.

올림픽 열기도 다시 뜨겁게 달궈졌다. 중국 언론은 "베이징 올림픽 성화가 그의 손을 통해 비로소 다시 살아났다"고 평가했다. /jrjkrccm@paran.com



휘문고 허준혁 투수

'절대강자' 없는 평준화 투·타 기량 고르게 향상

■ 올 무등기 대회로 본 고교야구

청원고 박상옥 투수

서울 청원고의 우승으로 열전 8일간의 '제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광주일보사·대한야구협회 공동 주최) 막이 내렸다.

지난 9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개막한 이번 대회에는 정성철, 안치홍, 정수빈 등 청소년 대표 12명이 출전해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김병현, 서재응, 이승엽 등 세계적인 야구 스타를 배출한 대회답게 국내외 스카우트들도 대거 무등경기장을 찾아 고교 유망주들의 활약을 지켜보았다.

◇고교야구의 진수 만끽=이번 무등기 대회는 절대강자도 절대약자도 없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졌다. 당초 우승 외 전력으로 꼽히던 청원고와 마산고는 패기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우승후보 광주일고와 동성고를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경기 참관을 위해 무등경기장을 찾은 우리 히어로즈의 장채근 코치는 "각 팀의 실력이 점차 평준화되면서 광주의 독주현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등 고교야구가 과도기를 맞고 있다"며 "선수들이 중심이 돼 선수 스스로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이끄는 팀이 앞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 2팀과 영·호남 각각 1팀이 4강에 오르며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지만, 부산 대표로 나선 부경고와 부산공고는 동성고와 서울고에 각각 콜드게임패를 당하면서 영남 지역 아마야구 발전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

박상옥·허준혁·허경민 등 프로구단 스카우터들 관심

이번 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마산고 이효근 감독은 "영남 지역은 선수 수급 등의 문제로 아마 야구 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마산고의 선전이 영남 지역 야구 발전의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망주들의 화려한 경연장=프로구단의 1차 지명을 받은 정성철(KIA·광주일고), 오지환(LG·경기고), 강윤구 (우리·장충고)가 무등기 대회에 모습을 드러내 야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오는 8월 16일 프로야구 2차 지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1차 지명 선수 이외의 다른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KIA 조찬관 스카우트 팀장은 "전국의 우수 팀들이 참여하면서 대회 수준도 높아졌다"며 "투·타에 뚜렷한 거물급 선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선수들의 수준이 뛰어나 스카우트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23경기중 홈런이 한 개 밖에 터지지 않은 반면 마운드에선 노히트 노런을 비롯해 완투승이 6차례나 나오는 등 '투고타저'현상이 뚜렷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는 만루포를 포함 3개의 홈런이 터져나왔고, 완봉승도 3차례 나오면서 투·타에서 균형있는 대결이 펼쳐졌다.

◇국내외 스카우트 관심 집중=공정한 대회 운영과 선수들의 실력이 절정기에 오르는 시기에 치러지는 무등기대회의 명성답게 프로야구 8개구단에서 2명씩의 스카우터들이 광주를 찾았다. KIA의 자매 결연팀 미네소타 트윈스의 아시아 담당 스카우트도 경기장을 찾아 유망주 기량 점검에 나섰다.

마운드에서는 장민제(광주일고), 박상혁(마산고), 조근종·박상옥(청원고), 허준혁(휘문고), 강윤구(장충고), 전인환(서울고), 정수빈(유신고), 안우주(화순고)가 스카우트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타석에서는 손명기·허경민(이상 광주일고), 안치홍·박건우(이상 서울고), 문선재·임익현(이상 동성고), 문선엽(마산고), 장영석(부천고) 등이 미래의 스타로 발돋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장 불패' 우즈 메이저 14승

서든데스 연장 접전 PGA US오픈 우승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사흘 연속 18번홀 마법을 연출하며 열네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우즈는 17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라호야 토리파인스골프장 남코스(파71·7천643야드)에서 로코 미디에이트(미국)와 치른 제108회 US오픈골프대회 18홀 연장전에서 이븐파 71타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7번홀(파4) 서든데스 연장전에서 파를 지켜내 보기에 그친 미디에이트를 따돌렸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통산 65승째를 거둬들인 우즈는 벤 호건(64승)을 제치고 통산 다승부문에서 단독 3위로 올라섰다.

우즈는 예상과 달리 세계랭킹 157위의 노장 미디에이트에 고전했다. 18홀 연장전도 모자라 추가로 서든데스 연장전까지 벌여야 했다. 미디에이트에게 버디를 얻어맞은 3번홀(파3)에서 보기를 적어내 잠시 수세에 몰렸던 우즈는 10번홀까지 3타 차로 달아나 손쉽게 우승하는 듯 했다.

그러나 우즈는 11번홀(파3)에서 티샷을 벙커에 빠트린 우즈는 6m 짜리 파퍼트를 놓쳐 추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우즈는 파3홀 네곳 가운데 세곳에서 파를 지키지 못했다. 이어진 12번홀(파4)에서 드라이브샷을 벙커에 빠뜨려 세번만에 그린에 올라와 파퍼트를 실패한 우즈는 13번홀부터 15번홀까지 3개홀 연속 버디를 때린 미디에이트의 '무심타(無心打)'에 말려 패전의 위기에 몰렸다.

16번홀(파3)과 17번홀(파4)에서도 잇따른 버디 기회를 살리지 못한 우즈는 1타 뒤진 채 18번홀(파5) 티박스에 올라섰다.

3라운드에서 단독 선두로 끌어올렸던 이글, 그리고 4라운드에서 극적인 연장 승부를 만든 버디가 터져나왔던 18번홀에서 우즈는 다시 한번 마법을 부렸다. 번번이 페어웨이를 한참 벗어나던 드라이버 티샷은 326야드를 날아 페어웨이에 안착했고 217야드를 남기고 아이언으로 친 볼은 가볍게 그린에 내려 앉았다. 12m 거리에서 친 이글 퍼트는 홀을 지나쳤지만 수월하게 버디를 잡아낼 수 있었다.

5m 버디 퍼트를 놓쳐 추가 연장전에 끌려 들어가게 된 미디에이트의 얼굴엔 이제 미소가 사라졌다. 90홀에 걸친 열전에 비해 7번홀(파4)에서 치러진 추가 연장전은 싱겁게 결말이 나고 말았다.